

“남도서 많은 문인들 배출되길...”

장흥 천관문화관 '문학의 섬' 성황... 신경림 시인 강연

장흥 천관문화관(관장 이대흥)이 개최한 제11기 문예학교 '문학의 섬'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 동안 천관문화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농무'의 신경림 시인을 초청, 문학 강연과 팬 사인회 등이 열렸다.

첫째 날은 붓글씨 쓰기 퍼포먼스가 있었다. 서예가 이봉준(64) 씨가 큰 붓으로 대형 한지(2m×5m)에 '詩靄'를 쓰는 것으로 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후 밤에는 신경림 시인의 사인회와 문학 강좌가 있었다. 신 시인은 '시와 소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요즘엔 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데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가 좋은 시"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장흥에 유독 작가와 시인이 많은 이유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천관산 때문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 훌륭한 문인들이 장흥을 비롯한 남도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14일에는 선중보살인 보림사를 둘러보았다. 이창준과 한승원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보림사는 김삿갓, 백광훈을 비롯한 수많은 시인들의 작품 배경이 된 곳이다.

다음 '문학의 섬' 행사는 오는 5월 25일 '은비령'의 작가 이순원씨를 초청 다채로운 행사를 열 계획이다. 문의 (061)-860-045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 13~14일 장흥 천관문화관에서 열린 '문학의 섬' 행사에서 서예가 이봉준씨가 글씨를 쓰고 있다. (천관문화관 제공)

독립영화 '지슬' 관객 10만 돌파

똥파리 이후 4년만... 특별 엽서 제작 무료배포

제주 4·3의 역사를 다룬 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2'(이하 '지슬·사진')가 관객 10만을 돌파했다.

이 영화의 배급사 진진은 12일 오전 '지슬'의 누적관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에서는 현재 광주극장과 CGV 광주터미널점에서 상영중이다.

지난달 21일 전국에서 개봉한 이래 22일 만이다. 상영관이 100개가 되지 않는 독립영화로 10만 관객을 넘는

것은 2009년 '위낭소리'와 '똥파리' 이후 4년 만이다.

진진은 10만 돌파를 기념해 영화의 명장면, 명대사를 담은 특별 제작 엽서를 5000부를 제작, 15일부터 각 영화관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한정 제작된 이 엽서에는 미공개 스틸은 물론, 엽서의 순번까지 새겨져 있어 소장가치를 더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람에 대한 고민과 애정 담긴 작품 올려야죠”

‘5월극 대표 단체’ **극단 토박이** 30년

극단 토박이의 연극 '금희의 오월'은 1988년 광주 YWCA에서 첫 공연을 가졌다. 극본과 연출을 맡은 극단 대표 고(故) 박효선씨와 배우들은 비밀리에 작품을 준비했고 모두 '잡혀갈 각오'를 하고 무대에 올랐다. 무엇보다 궁급했던 건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5월'을 소재로 작품을 올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주연을 맡았던 배우 임해정(48)씨는 함께 울분을 터트리고, 함께 울었던 그 때의 기억을 지금도 생생히

후 입씨와 부부의 연을 맺은 박정운(42)씨가 주인공이다.

민들레 소극장은 지난 1989년 겨울 전남대 정문 인근에 문을 열었다. 현재 자리로 이사온 것은 지난 1995년이다. 솔직히 민들레 소극장은 다양한 작품을 올리기에 여건이 좋지 않다. 많이 낡았다. 하지만 이곳을 지키는 단원들의 열기는 뜨겁다.

“공연장의 층고가 낮아서 참 아쉽소. 창작자로서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로 창단 30년을 맞은 극단 토박이의 임해정, 송은정, 박정운(사진 왼쪽부터)씨는 토박이가 '사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극단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송은정·임해정·박정운 등 3명 극단 터줏대감

‘금희의 오월’ 대표작... 환경·청소년 작품 등 제작

억한다.

“오월극의 대표 단체” 극단 토박이가 올해로 창단 30년을 맞았다. 1983년 박효선씨 등 전남대 연극반 출신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토박이'는 30년의 세월 동안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대와 호흡하며 다양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려왔다.

지난 11일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토박이의 '민들레 소극장'에서 단원들을 만났다. 토박이는 초창기 스무명이 넘는 대식구를 거느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예부대' 3명이 꾸민 극단을 운영하고 있다. 1987년에 입단한 송은정(46), 이듬해 식구가 된 임해정(48), 1999년에 토박이에 들어온

많은데 그런 시도를 못하니까요. 요즘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아동극은 환상이 가미되는 게 많기도 해서 더 아쉬운 부분도 있구요. 공연장이 작다보니 외지 공연을 나갈때면 세트틀 또 하나 만들어야 해요. 대신 공간에 맞춰 작품을 구상할 수 있게 된 장점은 있네요.(웃음)” (박정운)

‘토박이’의 정체성은 곧 오월 연극으로 통한다. 흔히 '5월 3부작'으로 꼽히는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이 대표작이다. 또 '장미여관 208호', '아름다운 율법', '마중' 등 찾지는 않지만 새로운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 전국 순회공연을

하며 지금까지 2000회 가량 오월극을 무대에 올렸다.

여전히 '오월'은 이들이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는 주제다.

“지나해도 원주와 제주도 등에서 공연을 했어요. '마중'이라는 작품을 올리는데 관객 대상층에 따라 반응은 다양하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의문도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월 작품에 대한 부담감은 언제든 지었어요. 요즘에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5월이 묘사되는데 역사적 사실,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예술작품이 주는 보편성을 획득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아요. 우리 작품도 마찬가지일테

고요.”(송은정)

올해 토박이는 오월 관련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 오월 광주를 '역사' 속의 어느 사건처럼 인식해버리는 청소년들이 5월에 쉽게 다가갈수 있는 작품을 구상중이다.

토박이가 관심을 가져온 또다른 분야는 환경을 소재로 한 작품 등 다양한 소재의 가족극이다. 지금까지 '가물치 왕자', '토토·투투 할머니의 이야기 극장', '홀라 아저씨 오두막' 등을 무대에 올렸다. 또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토박이 어린이 연극교실' 역시 토박이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

지역의 여느 극단처럼 토박이 역

시 '젊은 피' 수혈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다른 극단보다 상황은 더 힘든 편이다. 너무 힘들어 한때 극단 문을 닫으려고 한적도 있었다.

“며칠 전에도 한 사람이 왔다가 하룻만에 못 견디고 가버리더라고요. 우선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해요. 세트 만들고 거의 막노동 수준이죠.(웃음) 토박이는 사람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시대에 맞게 변화하겠지만 무엇보다 사람에게 대한 애정과 고민, 연극에 대한 고민, 사람과 연극의 만남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임해정)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체의 움직임에 선을 긋다 이호국 개인전, 30일까지 국윤미술관

유화로 드로잉 작업을 하는 화가 이호국씨가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동구 소태동 국윤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씨는 '선을 긋다'(Draw the Line) 주제의 전시에서 인체의 움직임을 강력한 필선으로 형상화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유화의 질감에서 벗어난 독특한 붓질로 그려낸 'Per-

formance'(공연), '나무' 'City scape'(도시) 연작 등이다.

그의 캔버스에서는 미묘하게 색이 칠해진 곳이 없다. 구성구석을 획과 필선으로 채워놓았다. 이런 탓에 끝이 뭉툭한 연필로 스캐치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등장 인물들의 움직임은 역동적이고 흥겨운 리듬을 보여준다. 도시 연작에서는 형태를 알

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물을 풀어놓았다.

작가는 이런 작업을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끊임없는 탐구일지도 모른다. 지루한 삶과 일상이 조합된 모습들에 대한 변형된 추상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문의 062-232-733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도시’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지하 1,2층 할인매장 1,2 이태리 가구 3층 단롭침대 4,5층 모던,혼수가구

www.hong79.com

Duniopillo

Duniopillo

ITALIA BED

단롭침대 광주 대리점, 천연라텍스 100%
세계최초 최고 라텍스, 유기농 항균커버, 척추질환 교정, 홈페이지 참조

동구청영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1899-0240